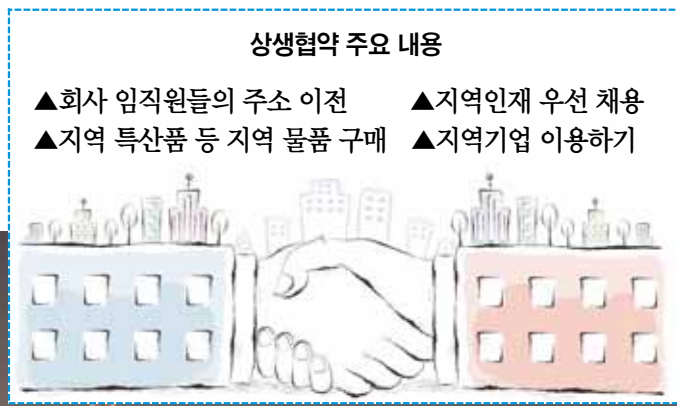


# “지역발전 힘 모으자” 상생협약 릴레이

여수시-산단기업들 잇따라 체결  
8개업체 동참...고용창출 등 약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여수산단 야경



지난 17일 열린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여수시와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이 상생 협약 릴레이를 통해 지역발전엔 힘을 모으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여수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생발전 공동업무협약’에 지금까지 8개 기업이 동참했다.

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물품 구매 등이 약속되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여수시와 국내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약속하는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생협약 릴레이 시작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한화 여수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한국바스프, GS칼텍스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금호석유화학 그룹 4개 공장과 남해화학, LG화학 등 다수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여수시는 이들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각 기업들은 ▲회사 임직원들의 주소 이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특산품 등 지역 물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하기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돕

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여수시와 릴레이로 상생 공동업무 협약을 맺은 8개 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 53명 전입을 마쳤다. 또 지역민 43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면서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지역 농·수산물과 원부자재 등 지역생산물 구매에 54억원을 지원했다. 각 기업들의 석유화학 공장 대정비와 지역내 현장 공사에 지역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111억원 등을 집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연장인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 공헌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집수리와 독거 노인 보살핌 등 의료·인문 이웃을 위한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기업홍보 안내판 설치로 상생효과 높여 =특히 여수시는 상생 협약을 맺은 국가산단 기업들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시청 현관에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애郷심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분위기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여수 국가산단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민들도 기업들의 ‘여수 시민되기 운동’ 추진 과정과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효과로 인해 지역과 기업들의 친밀감도 한 층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산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릴

레이를 중점 추진해 갈 방침이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구축을 위해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또 기업체의 창립기념일 축하 이벤트를 사기(社旗)를 시청 계양대에 내걸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 롯데케미칼 창립기념을 맞아 시청과 돌산청사 등 2곳에 사기를 계양하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하 바 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행보는 여수 국가산단 조성 이후 처음있는 소통 행진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 중심 역할 등을 지역민에게 잘 전달,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산단 주요기업 등 지역 기업들의 창립기념일에 맞춰 사기를 시 계양대에 걸어 축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 기념행사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주철현 시장은 “산단 대기업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지역 사회 상생·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행정지원으로 지역기업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동계 전지훈련 유치 93억 경제 파급 효과

여수시가 지난 겨울 실업팀과 전국 대학, 초·중·고교 학생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92억8000만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트 국가대표 선수단, 마사회와 삼성생명 등 실업팀, 세월호 사고로 아픔을 겪은 안산 단원고 탁구팀 등 전국 587개팀 1만2031명의 선수들이 여수를 찾아 동계 전지훈련을 했다.

이들 훈련단은 온화한 기온과 깨끗한 숙박시설, 맛갈스러운 남도 음식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여수를 찾아 훈련하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장 시설과 전용 경기장을 갖춘 환경도 선수단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18개의 호텔·콘도 등 뛰어난 숙박시설과 전주-순천 간 고속도로, 고속철도(KTX) 전라선 개통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도 선수단과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여수시는 여수를 찾는 동계 전지훈련단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동계 종목별 리그전 개최를 통한 우수팀 시상금 지급, 경기장 사용료 감면, 관광 시설 이용 시 여수시민과 동등한 할인, 시내 교통편 제공, 참가팀 격려, 훈련 상대팀 섭외 안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편리한 접근성과 잘 갖춰진 스포츠 기반시설, 온화한 기후, 풍부한 먹거리 등 여수의 다양한 장점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동계 스포츠훈련 적지로서 전국적인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1300만 관광객 유치 팔건은 여수상의

전국 1500곳에 방문 요청 공문

여수 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13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상의는 최근 전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학회, 단체, 조합 등 1500여 곳에 여수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수상의는 공문에서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 도로, 철도, 공항, 숙박업소 등 관광 인프라가 훌륭하게 갖춰졌다”며 “지난 1일부터는 용산~여수간 고속철(KTX) 2시간 50분대 주파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문도·백도 등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여수는 다양한 볼거

리와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등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특히 세계 박람회장내 ‘빅오쇼’를 비롯해 야쿠아리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스카이라인 등 뛰어난 관광 상품들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상의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상 케이블카와 바닷가 풍경을 감상하며 봄을 즐길 수 있는 레일 바이크, 여수 국가산단의 아름다운 야경 등은 여수를 찾는 분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 회의장을 갖춘 특급호텔 등 훌륭한 숙박시설과 리조트, 골프장이 도심에 있어 컨벤션과 세미나는 물론 업무에 지친 관광객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저탄소 생활 실천 ‘기후보호주간 행사’...23~25일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8회 기후보호주간 행사’가 23~25일 사흘간 여수에 열린다.

‘푸름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도시 여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여수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23일 구미평역사 강연회를 시작으로 25일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후보호 행사 기간 동안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시민 캠페인도 함께 열린다.

25일에는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제45주년 지구의 날 기념 ‘푸른 길 및 숲 공원 조성 성공다짐 퍼포먼스’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플래시몹’ 행사 등도 선보인다. 또 여수시 학생 흥국체육관 사거리 등 시내 중심 도로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 기후보호 시범도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민체험 버스운영 ▲푸른 길 시민걷기 대행진 ▲기상기후 사진전시회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문화행사도 열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창사 63주년

Travel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곳 저곳 아름다운 곳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황제처럼...

황제관광여행사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 062)267-8580 담당자 | 문봉구 010-3999-3226